

이마트, 태양광 발전시설 가동

용인 구성점 전력 생산량 570mwh ... 한국전력에 전량 공급

<그린 신세계, 클린 컴퍼니>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가 경기도 용인 구성점에서 본격적인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다.

10월에는 이마트 제천점에서 국내 대형마트로는 처음으로 지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구성점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3월27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고 3월30일 발표했다.

구성점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용량은 460kW로, 연간 57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전력은 전량 한국전력에 판매한다.

연간 570mwh 규모의 전력은 일반가정 약 160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신세계 측은 설명했다.

신세계는 구성점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241톤 가량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직사각형 일반 모듈(태양전지)만이 아닌 여러 형태의 모형 모듈을 더해 산과 나무와 같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과 대체 에너지 사용을 널리 알리는 친환경 홍보물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10월 오픈 예정인 제천점에서는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지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열시스템이란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중온도(15℃)를 활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설비로 태양열이나 풍력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열원 공급이 가능해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성능저하가 없고 일정한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제천점에 지열시스템을 도입하면 연평균 650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24만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학서 부회장은 “최근 지구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대형 유통시설들의 이산화탄소 감축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30>